

사업·인사제도, 그룹차원 결정 ‘따로따로’ 임금교섭 개선 절실

팀 네이버 경영체계 시험대

경기지노위 시정신청 심판회의
본사 포함 16개 법인 통합교섭 요구
카카오 등 IT 업계 전반 파장 주목

네이버가 강조해 온 ‘탐네이버’ 경영체계가 노사관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사업과 인사제도는 그룹 차원에서 연계하면서도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교섭은 개별 법인별로 진행되는 구조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룹 경영의 효율성과 계열사별 독립성을 강조해 온 플랫폼 기업의 운영 방식이 노동관계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이번 갈등은 네이버 한 기업의 임금협상을 넘어 국내 정보기술(IT)업계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플랫폼 기업에서 본사의 경영 권한과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일차시켜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식품산업노동조합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이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연다.

노조는 네이버 본사를 포함한 16개 법인의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본사가 계열사의 인건비와 근무제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에도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네이버 측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 그룹 경영과 노사관계 ‘엇박자’…반복 교섭 비효율 논란

갈등의 핵심은 네이버의 그룹 경영체



지난 21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22일 노조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심리한다. 노조는 이날 낮 12시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1784’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교섭 수용을 촉구했다. 사진은 오세훈 지회장이 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시스

계와 개별 법인 중심의 교섭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네이버는 클라우드와 콘텐츠, 플랫폼 등 사업별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조는 인건비 재원과 성과보상 기준, 근무제도 등 주요 결정에 본사가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본사를 포함한 16개 법인에서 매년 개별 교섭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비슷한 의제를 협상하면서도 최종 합의 내용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만큼 교섭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본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된 이후 계열사들도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교섭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노조는 인건비와 성과보상, 고용대책 등 공통 의제는 본사가 참여하는 기본교

섭에서 논의하고 법인별 특수한 사안은 별도의 보충교섭으로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계열사마다 다른 사업 환경과 재무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 네이버 넘어 IT업계로…그룹 단위 교섭 확대 주목

네이버의 통합교섭 논란은 국내 IT업계 전반의 노사관계에도 맞닿아 있다. 플랫폼과 게임업계에서는 계열사 간 근로조건과 교섭 체계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 노조 역시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과 법인별 교섭 구조 사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 방향과 조직개편은 그룹에서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고용과 근로조건 문제는 개별 계열사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본사의 실질적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분 구조와 매출 의존도, 인사 이동,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을 담은 약 2000쪽의 자료를 노동위에 제출했다. 경기지노위가 시정신청을 받아들이면 네이버는 결정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심판이 통합교섭 자체를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고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교섭 범위와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추가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갈등은 플랫폼 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행하는 경영 권한을 노동관계상 책임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네이버에서 시작된 교섭 구조 논쟁이 국내 IT업계 노사관계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KT,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전국 확대

무선·위성 영역으로도 확장

KT가 전국 네트워크 인프라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 검증에 나선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참여하는 ‘2026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고도화·확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세대 양자 기술의 실증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다.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는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28년까지 이 테스트베드를 기존 서울·판교·대전 구간에서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게 목표다.

KT는 상용 거점인 ‘가 구간’과 미래 거점인 ‘다 구간’의 구축·운영을 맡는다. 이와 함께 산·학·연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국방·금융 등 국가 핵심 분야의 양자보안 기술 활용을 지원해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먼저 상용 거점인 ‘가 구간’ 사업은 대전을 거점으로 전-대구, 대전-광주,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 구간을 신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을 연결하는 전국 단위의 광역 양자암호통신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산 양자암호통신 장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서로 다른 통신망과 장비를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해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 거점인 ‘다 구간’에서는 기존 광케이블 기반의 유선 양자키분배(QKD)를 무선·위성 영역으로 확장한다. 광케이블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구간이나 위성과 지상간 양자암호통신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양자 얽힘분배 기술을 검증해 서로 떨어진 지점에 양자 얽힘 상태를 공유해 장거리 양자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KT는 약 4.8km 수준의 무선 양자키분배 실증 거리를 약 15km로 확대하고, 장비 모듈화와 대가난류 적응형 광학기술을 적용해 향후 위성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 노드 간 양자 얽힘 분배 기술을 검증해 장거리 양자 네트워크 구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SKT, 의도치 않은 해외망 접속 막는다

‘T 로밍 안심국가’ 선배

SK텔레콤은 해외망 접속 단계에서 고객이 로밍 허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T 로밍 안심국가’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객이 해외 이동 통신망에 처음 연결을 시도할 때, 해당 국가에서의 로밍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의도치 않은 해외망 접속을 막고, 과금이나 부정사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는 자동 방식과 수동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자동을 선택하면 출장이나 해외여행 때마다 방문 국가를 직접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망 연결을 시

도하면 출국 전 공항 방문 여부, 해외망 접속 정보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출국에 따른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한다.

수동 방식을 선택하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해둔 국가에서만 로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허용 국가를 한 곳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외 로밍 연결이 원천 차단된다.

SK텔레콤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며 상시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로밍 서비스까지 넓혀 능동적인 보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T 로밍 안심국가’는 T 월드 홈페이지와 앱, T 로밍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통신3사, 장기 고객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화담숲 초청, 유명 셰프 메뉴 체험 등
장기 고객 관리, 안정적 수익 직결
CEO도 고객 직접 만나며 관리 나서

통신3사가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브랜드 경험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3사는 오래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다. 이전에도 문화 행사 참여 기회나 영화 관람권 등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공연, 미식부터 식물원 탐방까지 다양해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LG유플러스의 화담숲 초청행사가 있다.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화담숲은 가을철 단풍 명소로 알려졌다. 행사 응모에만 4만 명이 이상이 몰렸다. 계절 수요와 고객 등급을 고려해 가을 행사는 10년 이상 이용한 고객이 대상이다. 현재 봄·가을에 연 2회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연간 24회로 확대한다. 기존(8회) 혜택보다 3배 큰 규모다. 지역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



정재현 CEO가 지난 8월 열린 장기고객 프로그램 ‘테이블데이’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도 추가된다.

SK텔레콤은 유명 셰프의 대표 메뉴를 즐기는 ‘테이블데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5곳을 돌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호텔에서 미식을 즐기는 초청 행사다.

KT는 10년 동안 자라섬에서 개최하던 음악 행사를 전국 단위 행사로 전환했다. 행사명도 ‘KT 보야지 페스티벌’로 정하고, 매년 특정 지역에 찾아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기존에 운영하던 초대대림 행사를 월별 문화·여가 행사로 확대했다. K T 모바일과 인터넷, TV 결합 상품을 5년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 기간

에 따라 무료 쿠폰도 지급한다.

장기고객 관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인 통신 본업을 지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알뜰폰과 차별화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식이다.

이에 통신사 CEO가 고객 관리에 직접 나서지는 모습이다. 정재현 SK텔레콤 대표는 ‘숲캉스 데이’와 ‘테이블 데이’에 참석해 장기고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흥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일상비밀상 의탐’에 멤버십 전용 라운지를 마련하고 재단장에 앞서 고객을 직접 맞이하는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LG U+, 장거리 프론트홀 기술 검증

에릭슨과 장비 연결거리 3배 확대

LG유플러스가 6세대 이동통신(6G)의 핵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검증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 에릭슨과 기지국 장비 간 연결 거리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장거리 프론트홀 기술을 검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통신업계는 장비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AI-RAN,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등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프론트홀은 기지국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무선장비(RU)와 데이터 처리하는 장비(DU)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이번 검증에서 에릭슨이 제공한 프론트홀 장비와 네트워크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장거리 프론트홀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또한 자사 기지국 장비와의 연동성과 네트워크 자동화 기능을 함께 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내 장비실에서 장거리 프론트홀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증했다.

양사는 이번 검증을 통해 기지국 장비 간 연결 거리를 최대 3배 확대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하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예비 장비로 자동 전환하는 ‘DU 이중화’ 기술도 함께 시험했다. 향후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검증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조민선 기자